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12월 20일 ( 제1076 호 )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 목회 36년에 즈음하여

“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냥꾼이다.” 사람들에게 나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와~~ 멋지네요. 호랑이 등에 탔으니 진짜 폼 나잖아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나는 호랑이 등에 매달려야 하는 죽기 살기의 심정으로 산다는 뜻이기에 그렇다.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는 순간, 호랑이에게 물려 죽으니까. 목회 36년, 나는 늘 물 위를 걷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집회에 임했다. 낯설고 물설고 언어마저 생소한 머나먼 이국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팬팡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방해세력도 만만치 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주최 측도 있고, 나만 믿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집행부도 있다. 또 대부분이 야외집회인데 당일까지 비가 오는 경우도 많아 비바람에 단상트러스가 날아가고, 오디오 시설이 불안하여 육성으로 해야 할 때도 종종 있었다. 정말 낙타 무릎이 되지 않고서는 집회를 마칠 수 없었다. 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냥꾼의 마음으로 나는 절절한 기도를 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에 감사한다.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늘 매사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 전념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고로 느슨해지고 편안해지면 잡다한 생각을 하게 되는 법 아닌가. 다윗이 이제 좀 편하다 싶을 때 밧세바를 향한 음욕이 일었듯이 말이다. 그래서 나는 늘 나를 조이고, 채찍질한다. 오히려 나 스스로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지도 모른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로 가는 거다. 넓어서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생활에 거치적거리는 것을 다 버리고 가야 하는 외로운 길이다. 더욱이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자는 애착을 가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뽀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심정으로 가야 한다.

목회 36년, 나는 내 삶에 배수진을 치고 달려왔다.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세우며 왔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이 있다고 믿는다.

# 목사님께 받은 가장 큰 유산

12월 22일이면 목사님의 성역 36주년을 맞이한다. 먼저 목사님의 36년 목회 가운데 대략 30년을 함께 하는 동안 수많은 장면을 목격하고 그것을 영상이나 문서로 기록해온 경험에 비추어 단언하건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목사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첫 만남 이후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지금까지 항구여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을 불사르며 증거하고 자랑해 오신 목사님

목사님을 만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쉽고 재미있었다.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게 특화된 말씀이었다. 이전에 여러 교회로 끌려 다니며 들었던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건만 내 삶과는 동떨어진 마치 특별한 인문학분야 강의 같았다면, 목사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을 울렸고, 나를 움직이게 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단순한 명제를 가슴에 새기게 되었고, 그 너머 천국의 왕권과 상에 대한 확신까지 갖게 되었다. 가히 천국학원의 명강사이시다. 단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나신다 해도 이 한 가지 유산만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나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끝으로 자식을 키우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 혼나고 야단맞을 때면 야속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나도 부모가 되어 같은 입장이 되어보니 내 자식이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진짜 내 자식이기에 야단도 치고 혼도 내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네 아비야!”라는 선포이기도 하다. 분명한 자격이 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삼상12:23)

또한 예사롭지 않다. 나는 목사님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싶다.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모델, 샘플로 우리 앞에서 길을 개척해오셨던 사실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위기 앞에, 문제 앞에 흔들렸고, 때로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눈앞의 손쉬운 선택을 하다 무수히 넘어지고 자빠지곤 했었다. 말은 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며 고민해볼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그 다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답인 줄 알면서도 과연 무식하고 미련하게, 뻔히 손해 보는 줄 알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 질타를 받으면서도 그 길로 갈 수 있는가? 곧 실천할 수 있는가이다.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 낙심하고 좌절하기 일쑤다.

순히 대학교 턱걸이 입학비결을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 명문대에 넉넉히 들어갈 뿐 아니라 높은 평점을 받으며 수석까지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명강사 중에 명강사이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목사님께 받은 가장 큰 유산이라고 믿는 것은 ‘기도’다. 내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해결 받을 수 있다는 지식이다. 나 스스로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 명명하고 싶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전능자와 일대일로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분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그 가르침이 가장 큰 유산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날마다 사자후를 토하시며

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목사님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칠 수 있는 것도 아비의 심장이기에 가능한 것이요, 이것은 역으로 자격 있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 해산의 수고로 낳은 믿음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믿기에 야단도 치고 혼도 낼 수 있다 이 말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성령으로 인치셨기에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허튼 길로 가지 않도록 아비로서 때론 회초리를 드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36년을 항구여일하게 기도하시는 분이기에 신뢰를 갖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간다. 목사님의 성역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러한 우리 목사님이 더욱 건강하시길 간절히 소망한다.

한은택 목사

12월 9일(수요일예배) ~ 27일(주일예배)까지  
3주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됩니다 문의: 02. 533. 9191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50:1~6)

## 우리의 마땅한 의무, 찬양이다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 만듭니다. 의자는 사람을 앉게 하려고 만들고, 자동차는 운반수단으로 만들어집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라고 만들고, 핸드폰은 상호 연락을 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의 목적을 행치 않는다면 어찌 될까요? 당연히 그것들은 무익한 것이 되고, 조기 폐기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찬양은  
사막의 오아시스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이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4~6).

이는 찬양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시33:1).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송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야기부터 할까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악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불러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신이 물러갔습니다(삼상 16:23). 그렇습니다. 찬양을 하면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힘과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유다 왕 여호사밋이 에돔 왕과 함께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군사들이 목이 말라 기진맥진하자 선지자 엘리사에게 문제 해결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먼저 해답을 제시하는 대신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의 감동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고, 개천을 파내어 물을 공급해주는 기적이 일어나고, 모압을 그들 손에 붙여준다고 약속을 받게 됩니다(왕하3:15~18).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시22:3)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 침공할 때에 여호사밋이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레위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찬송의 능력을 맞본 여호사밋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앞드려 경배했고, 전쟁의 선두에 병사가 아닌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복병을 두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 살육하는 자 중



총회장 이초석 목사

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킨 것입니다(대하20:21~23).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원수가 있을 때, 악한 마귀가 나를 괴롭힐 때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찬양의 능력의 좋은 예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입니다. 바울은 귀신이 들려 점을 하는 여인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빌미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매를 맞고 손발이 묶인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행16:26).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사슬이 저절로 풀린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

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의 일을 하다 잡혀 많이 맞고, 옥에 갇혔으니 불평할 수도 있었습디만, 불평 대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도 불평하는 입 대신 찬양의 입을 열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를 묶은 문제와 어려움, 저주의 사슬이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찌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찌어다 저가 네 문지방을 견고히 하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케 하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펄부스르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시147:12~18).

그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노래 잘하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삼하23:1). 다윗은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였고(삼하6:5), 다윗성에 입성할 때는 바지가 흘러내려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삼하6:20). 그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13:22). 성가대의 기원도 다윗에서 비롯된 겁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어마어마한 성가대를 구성하고 체계적

인 교육을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사막에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 대신 불평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손뭉치며 찬양을 할라치면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래봐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사회적 체면이 있지.” 합니다. 하지만 왕인 다윗도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를 정도로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우리는 왜 안합니까?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제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면서 춤을 추니까 어린 마음에 좀 창피했나 봅니다. “아빠, 제발 춤 좀 추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윗이 미갈에게 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한 거야. 사람 보라고 한 게 아니란다.” 찬양은 우리 기분에 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까요? 다윗은 시편 150편을 통해 말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찌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찌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찌어다”(시150:3~5). 시편 33편에도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찌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찌어다”(시33:2~3)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춤을 추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귀란 놈이 가로채서 세상 사람들은 악기를 동원하고 흥에 겨워 노래하고 즐겁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해요.’, ‘못해요.’ 이러고 있는데 말입니다.

찬양은  
가뭄에 단비와 같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은 남편과 아내 같은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기쁨과 축복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황소를 예물로 드리는 것보다 찬양이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시69:30~31).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시150:6).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13:15). 할렐루야!

이초석 목사님의 성역 36주년을 축하드리며, 축하의 메시지를 실습니다!

## 성역 36주년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의 성역 기념일이 되면 고창 포도원에 400평 쯤 되는 밭 전체를 뒤덮고 있는 한 그루 포도나무가 늘 떠오르곤 한다. 어떻게 포도나무 한 그루가 그 넓은 땅을 뒤덮을 정도로 클 수가 있을까. 상상하기가 힘든 일을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다. 사진만 보아도 입이 떡 벌어진다.

봄이 되면 그 포도나무에 달릴 수천 송이의 분양이 순식간에 끝나서 분양된 포도송이를 잘 키워 늦여름이 되면 주인에게 배달된다고 한다. 기자에게 대답한 농부의 비결은 간단했다. 뿌리가 먼

저 뻗어나가야 나뭇가지가 뻗어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밭에 물을 줄 때 뿌리에 직접 물을 주지 않고 뿌리로부터 1미터 쯤 먼 곳에 등글게 물을 주면 뿌리가 살기 위해 물 준 곳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이다. 먼저 뿌리부터 온 밭에 가득하도록 키워나간단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마침내 뿌리와 나무가 서로 도와가며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는지 아무리 커도 실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단다.

우리 목사님 포도나무도 요셉의 포도나무가 담을 넘은 것처럼 전 세계로 가지를 뻗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지금도 그 가지들을 통해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들을 보고 듣는다. 목사님의 포도나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것도 뿌리가 먼저 뻗어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 뿌리가 기도라고 생각한다. 농부가 뿌리

에게 고통을 주어 넓게 뻗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포도나무가 지구촌을 덮게 하시려고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를 걷게 하셨나보다.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고, 성령의 생수가 아니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눈물의 기도로 그 뿌리가 먼저 온 세상으로 넓게, 넓게 뻗어나갔으리라.

어느덧 36년생 나무가 되어 수없는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그 그늘에 거하며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 공들여 키운 나무도 계속 공을 들이지 않으면 망가지고 고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낀다.

안성에서 배 밭을 하시는 어느 성도 집에 심방 간 적이 있었다. 나무가 분재처럼 되어 족히 100년은 된 것 같아 보였다. 이 나무는 얼마나 났냐고 물으니 예

상대로 100년 쯤 되었단다. 지금도 열매를 맺느냐고 물었더니, 손질을 계속 하니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고 배도 엄청 맛있단다.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키워 오신 나무 대대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돌본다면 더 튼실한 나무가 되어 더 맛있는 열매를 계속 거둘 것이다. 예수중심교단의 나무가 더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목사님 성역 36주년을 우리 모두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시대 목사



## 내가 만난 이초석 목사님



원고 청탁을 받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의사들이 한명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선 중환자실에 있는 중병의 환자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앞둔 각종 암환자, 심장병환자, 심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만성 성인병을 가진 환자와 작은 질환이지만 점차 큰 병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되어 전쟁 같은 대란이 일어나고 두려움들이 물려올 것입니다.

한 명의 의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상상 이상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 6년간 거의 전교 1등을 해야 하고, 전제적 석차로는 전국에서 0.2%안에 드는 성적이어야 합니다. 의과대학 6년 동안 하루 18시간의 의학수업과 실험, 실습을 해야 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습니다. 의사면허를 받은 후 또 다시 인턴, 레지던트 5년의 기간 동안 하루 20시간의 수련을 받아야 초보 병아리 전문의 자격을 받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되기까지는 또 다시 10년 이상의 진료경험이 요구됩니다.

‘할 줄 안다’의 초보의사와 ‘잘 한다’는 명의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뇌수술 할 줄 아는 초보 의사와 뇌수술 아주 잘하는 명의(名醫)가 있다면 누구에게 수술을 받을 것입니까?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영혼의 의사인 목회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느 날 이 세상 목사님들이 모두 없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의료대란 같은 전쟁에 준하는 큰 난리와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이초석 목사님마저 안 계신다면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할 줄 안다’의 초보 목회자와 ‘잘 한다’는 원로 목회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의학과 신학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사실 의학은 신학의 시녀 학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신학이 먼저이고, 의학은 신학을 뒷받침하고 보조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의 사생활을 한 지 내년이면 36년입니다. 의사와 목사는 그래서 참 비슷한 것이 많은 직업입니다. 의사로서 ‘의학은 신학의 시녀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초석 목사님이셨습니다.

내가 이초석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26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나는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에 다니며 신학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는 ‘정통과 이단’시비가 정점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이단으로 몰아붙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 이초석 목사님의 대전집회에 참석

하여 예배시간에 귀신을 쫓으시는 축사의 현장과 암, 중풍,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타고 온 휠체어를 내버리고 짚고 온 목발을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이로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시며, 예배 말미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막12:28)”,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마 9:29)는 성경의 말씀만 전파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목사님 당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기도으로써 이루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분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그게 이초석 목사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심히 부러운 부분도 있었고,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치유하는 모습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는 죄책감이 물려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곁에서 지켜본 이초석 목사님은 ‘할 줄 안다’와 ‘잘 한다’를 구분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 당신이 ‘할 줄 안다’와 ‘잘 한다’에서 ‘잘 한다’를 선택하기 위해 매일 7시간씩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회와 교단 일에서도 목회자와 행정사무의 사람을 쓰실 때에도 ‘할 줄 안다’와 ‘잘 한다’를 구분하여 잘 하는 사람을 찾아내 일을 맡기셨으며, 어느 부분에서 ‘할 줄 안다’의 수준일 경우 과감하게 잘하는 외부 전문가에 일체의 일을

맡기시고는 조금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호4:6)는 말씀을 자주 하신 이유입니다.

목사님은 ‘목회는 외줄타기’라고 하셨습니다. 조그만 실수, 허물, 아주 작은 비리에도 소문이 나고, 이로 인해 외줄에서 떨어진다 하시며 스스로를 삼가고 기도하신 목회 36년의 성역이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외롭고 힘들고 눈물나고 괴롭고 고독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지점으로 살아오셨고, 제게도 늘 이것을 금과옥조로 모든 일을 판단하라 하셨습니다.

“의료진을 신뢰하지 않는 환자는 병이 여러 개 있는 희귀난치병 환자이고, 의사의 지시와 권고를 따르지 않는 환자는 곧 중환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는 신자는 여러 귀신들이 들어있는 희귀난치 신자이고, 목사님의 지시와 권고를 따르지 않는 신자는 곧 신앙의 중환자가 될 것입니다.

이초석 목사님의 지나온 36년의 시간을 두 손 들고 아멘으로 존경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36년의 기간이 더 성대하고 세계만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 더 굳건히 세워지는 예수중심교단의 미래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초석 목사님의 향후 36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역 3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의학박사/신경외과 전문의 안계훈  
신우 신경외과/재활의학과 대표원장  
메디스팀 줄기세포치료학회 이사장



물 위를 걷는 삶을 살아가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뉴욕 5차 집회 때(99년도)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일하던 헬로쉽 교회에서 찬양을 돕게 된 것이 인연입니다. 그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저의 교회 주최로 부흥 집회가 있었으며, 저는 그 때부터 무엇인가 강력한 힘에 이끌려 목사님의 해외선교팀 열차에 오르게 됩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군요. 정금 같은 남미의 ‘드림팀’이 구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과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남미 사역을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터득하게 되었지요. ‘아!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또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고 계시네.’ 목사님과 많은 경험을 통해 목사님의 삶을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며 많은 물리적인 적들을 물리쳤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 물 위를 걷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했습니다. 선교 날짜를 받으면 바짝 긴장이 되어, 또 어떤 적군들의 방해가 있을까, 그 적군들과 싸우는 일에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한 번은 텍사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데 굉장히 높아보여서 조심해야겠다 했는데, 그만 발이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 갔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음 날 무사히 팀과 합류하여 일하게 하시는 이적을 경험도 했습니다. 저는 영어단어에 ‘understand’란 말을 좋아합니다. ‘밑에(under, 아래에) 서다(stand)’인데요. 다른 표현은 상대방의 아래쪽에서(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뜻

이 되겠지요. 목사님은 항상 약자 편에서,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며 일처리 하시는 것을 늘 보아왔어요. ‘아. 저래서 실수가 없으시구나.’ 그 모습은 저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모습은 늘 감동이었지요. 그것뿐입니까? 미래를 보시는 안목도 남다르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파라과이 집회 때 저를 도와서 일하시는 한 분이 목사님께 어렵게 허락을 얻어 선교 길에 함께 하게 됐지요. 저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 집사 직분을 받게 했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 아내가 14년 동안 눈물의 기도를 드려 돌아온 탕자 같은 자였는데,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동행을 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10년이 다 되도록 그에게서는 만족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이 못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때가 되면 변화될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

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대신 성경 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집에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시편부터요. 그런데 이적이 일어났어요. 변화 받지 못한 그 집사가 성경을 쓰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더니 지금은 일등공신이 되어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정말 열심이며 저를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되었어요. 저는 그 때 다시 한 번 목사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시는 영감이 남다르시다는 것을 알고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남미 100만 명 집회에 가자고 하십니다. 21년 동안 ‘No’가 없었던 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코로나가 끝나면 목사님과 함께 다시 ‘드림팀’에 합류하여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겠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부족하나마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목사님의 성역 36년을 멀리서나마 축하드리며,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김성자 전도사

:: To Be Succeeded ::

:: To Be Succeeded ::

## 한 사람

우리 교단과 목사님과의 인연은 어릴 적 엄마가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도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엄마는 기도원 집회도, 당시 살던 지방 고향에서 열린 집회에도 어린 나를 꼭 데리고 다니셨다. 어느 날엔가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무료로 받아 들을 수 있다고 무척 기뻐하며 신청하시던 기억이 난다. 학교에서 올 때나 엄마가 잠깐 쉬실 때, 우리 집엔 어김없이 목사님의 설교 소리와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찌렁찌렁 울리곤 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면서는 더는 우리 교회나 목사님과는 접할 일이 없지 싶었다. 솔직히 그때 내 뒤편에는 부모님의 틀을 비롯하여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얻은 셈이었다. 그러나 몇 년을 선데이 크리스천처럼 살아가던 내 심령을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강력히 두드리셨고, 급기야 집에서 매일 홀로 예배하고 기도케 하셨다. 하나님의 참 종과 참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몇 달 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었고, 집 근처 큰 교회를 몇 번 가보시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며 예루살렘 기도원에 전화를 하시더니 기도처가 바로 근방에 있다고 하신다며 너무 기뻐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것 같던 우리 교회와 목사님께로 나를 아예 끌어다 놓으셨다.

다시 뵈게 된 목사님은 연세만 드셨지 더 풍성하고 깊어진 생명의 양식으로 양떼들을 먹이고 계셨다.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니 목사님이 왜 그토록 목에 피가 맺히도록 외치시고 또 외치시는지 다는 이해 못해도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자녀에게 좀 더 좋은 것으로 먹이시려는 그 마음이었다.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롬5:17~19),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그분의 뜻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묵묵히 십자가지고 걸어가시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살리라, 각오를 다지게 된다. 우리 또한 목사님께 배운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등불을 켜는 한 사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참 제자로 발돋움하기를, 생명의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완주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5:18~19).

이국진 사모

## 메리 크리스마스!

어떨 때 부모님 생신에 찾아뵙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부모님 생신을 잊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는 더욱 아닙니다. 다만 형편상 그랬을 뿐입니다. 그런 경우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목멘 소리로 전화를 드리면 부모님들은 “아이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힘들어서 걱정이지, 우린 괜찮다. 내년도 있잖니?” 하십니다. 올 성탄절이 그렇습니다. 부득이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원 제한을 할망정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예전처럼 생신축하 공연은 못해도 다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이라도 불러왔을 텐데... 올해는 각자가 집에서 해야 합니다. 요즘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때면 울컥해집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올해는 성탄절 예배조차 드릴 수 없네요.”라고 말씀드리면, 내 마음속에 잔잔히 들리는 음성, “그런 소리 마라. 너희만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해라. 내가 지켜줄게. 내년도 있잖니?” 하십니다. 부모님의 생신축하 선물 중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생신 선물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잘 넘기고, 이 기회를 믿음의 약진하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모두 축하합시다!

예수중심편집실



Merry Christmas!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